

군(軍) 부패요인이 군(軍) 신뢰를 매개로 국가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Effect of Military Corruption Factors on National Security Perception through Military Trust

전 경 국(Chun, Kyung Kook)*

ABSTRACT

The issue of controlling military corruption is very important factor for national secur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military corruption factors on national security perception through the mediator, military trust. The military corruption factors were classified as military corruption, personnel corruption, and military corruption. To conduct this study, a survey of 247 citizen in the metropolitan area was conducted.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ersonnel corruption and military delivery corruption had significant and negative influence on national security perception, but military service corruption had no significant influence. Second, in the influence of military corruption on military trust, military service corruption, personnel corruption, and military delivery corruption all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public perception of national security. Thirdly, military trust had a positive influence on citizens' sense of national security. Fourth,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military trust between military corruption factors and national security perception, military trust had significant negative mediating effects between military service corruption, personnel corruption, and military lead corruption among military corruption and the public perception of national security.

Key words: military corruption, military trust, national security perception, mediation effect

* 선린대학교 국방기술의무계열 조교수, 행정학박사

I. 서론

안보서비스는 비상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공공서비스이다. 경찰서비스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안보서비스와 비슷하지만 경찰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반면 경찰서비스가 부실한 경우 그 피해는 매우 제한적인 것에 비해, 국방서비스는 국민들 일상생활과는 밀착된 관련성은 없지만 전쟁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 재산과 생명의 피해는 매우 광범위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하여 항상 충분한 국방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국가안보 정책방향 설정 등 국가안보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민주주의 국가의 특성상 정책당국은 국민 여론의 향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에 따라 외교, 국방, 또는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정책을 순조롭게 구현할 수 있다(전경국, 2020). 이와 같이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과 그 구조적 관계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전상조(2003), 백승도(2012), 그리고 성백선(2014), 그리고 전상조(2003)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안보의식 결정요인과 의식 조사를 수행하였고, 류병목(2016)은 군복무 만족도, 전경국(2020)은 군 신뢰를 안보의식의 선행요인으로 지적하였다.

군 부패 유형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거론하면 병역비리와 인사비리, 그리고 군납비리를 들 수 있다. 이 중 군납비리 중 가장 거액의 자금이 유통되는 시장이 무기시장인데 여기에 정치권과 방산업체, 또 브로커 등이 개입하여 국민들이 세금을 불법적으로 낭비하고, 군의 물리적 군사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킨다. 또 인사비리는 무능한 군 간부를 승진시키고, 능력 있는 지휘관을 진급에서 탈락시켜 군 전력을 훼손시키고, 군의 담합을 막는 부정적 기능을 한다. 또 병역비리는 눈에 띄는 물리적 군사력 훼손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국가안보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야기한다.

이와 같이 군 부패가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와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다. 이는 군 부패와 안보와의 관계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미진한 이유는 안보와 보안을 명분으로 한 군의 폐쇄적 문화로 인해 군 부패의 관한 학술적 연구는 내부고발적 성격으로 규정되기 쉽기 때문이다. 군 부패에 대한 연구는 2011년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의 프로젝트 성격의 연구만이 존재할 뿐이다(박영욱,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군 부패문제를 학술적 영역의 수준으로 올려 군 부패요인이 어떤 구조적 과정을 거쳐 국민들이 안보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군 부패에 관한 차후 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학술적 연구들을 기대할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군(軍) 부패

군(軍) 부패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그 원인으로 개인적인 이유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그 배경인 경우가 많아 논의의 단순함을 위해 언론 노출이나 자신과 또는 주변의 직접 또는 간접 경험을 통하여 국민들이 가장 익숙하게 접하고 있는 병역비리, 인사비리, 그리고 군납비리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논의를 진행하였다.

병역비리는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군 비리 부패이다. 병역비리는 일부 특권층이 자신의 금권과 인맥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남성들이라면 당연히 짊어져야 하는 국방의 의무를 피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남성은 자신의 젊은 20대의 일부를 사실상 감옥과 비슷한 병영생활로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병역비리를 한국 사회의 공정성을 가장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인 유명 가수인 샤이는 군 복무를 2번이나 해야 했고, 가수 유승준은 아예 대한민국 입국 자체가 금지되어 한국에서는 더 이상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옛날의 병역비리는 병역의무자와 병원 관계자, 또는 병무청 관계자, 군의원 등이 담합하여 외관상으로도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의료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외관상으로는 합법성을 가장한 불법 병역비리가 성행하고 있다(박영욱, 2011). 한때 유명 인기가수였던 MC몽은 고의적으로 생니를 뽑아 외관상 합법성을 유지한 채 병역을 기피하여 법적 처벌을 받았는데 이런 유형의 병역비리는 연예계와 스포츠계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로 알려져 있다.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하여 일어난 가장 대표적인 병역비리 사례가 2004년에 일어나 대형 병역비리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관련자 136명 중 43명이 구속되었고, 48명은 불구속 입건, 3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연루자 모두 재검을 거쳐 재입대를 하였다. 2004년 서울지방경찰청은 야구 선수들을 시작으로 연예인, 대학·프로야구, 일반인에 이르는 대대적인 병역비리 수사를 진행하였다. 136명 중에 90명은 야구 선수, 나머지는 연예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중 송승헌, 신승환, 장혁, 한재석 등의 유명 연예인들도 포함되었다(박영욱, 2011).

병역비리가 국민들의 감수성에 가장 민감한 주제이기 하지만 입영자 중 병역비리를 저지른 사람의 수는 극히 극소수이고 물리적인 국방력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아 국가안보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고, 대한민국 군 체제가 일반 병 대신 부사관제로 전환되는 등 군 병력에 의한 국방력 유지보다 최신 최첨단 무기를 중심으로 하는 국방체제로 진화되고 있다. 그러나 병역비리로 인해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국방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기가 정치적, 또는 여론의 반대가 심각하게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앞으로 현대 최첨단 무기 위주의 국방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병역 비리는 꼭 청산되어야 하는 군 부패 중의 하나이다.

두 번째 심각한 군 부패가 인사 비리이다. 다른 공적 조직이나 사적 조직보다 군 인사 비리가 심각한 이유는 계급정년이라는 군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인사제도 때문이다. 군인사법 제8조 현역정년 규정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군 간부는 근속정년과 연령정년, 계급정년을 동시에 적용받고 있다. 즉, 이 세 가지 기준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전역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군 조직의 특성상 부하가 상관의 명령에 대해 절대 복종이 필수적인데 계급정년이 없으면 자신의 후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계급정년을 피하기 위해서 진급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장교들의 운명이다. 또한 계급정년에 걸려 전역한 경우 일반 사회에 적응이 쉽지가 않다. 통상 일반사회에서는 군 관련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군 관련 방산업체 및 군 관련 협회 등에 취직을 하지 못하면 자신이 진출할 수 있는 민간 영역은 경험이 전무한 자영업 밖에 없다. 따라서 계급 정년을 피하기 위해서 상관에 대해 뇌물 공여 및 정치적 줄서기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무능한 장교가 진급하고 유능한 장교가 탈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겨 군 전력의 악화를 가져온다.

이와 같이 군 인사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진급 시기만 되면 인사비리 제보나 무고가 쏟아지게 된다. 박영욱(2011) 연구에 따르면 2010년 법무장교 K장군은 국방부 인사 복지실장과 국정원 합참 출입요원 Y에게 “청와대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 정부 시절의 좌파장교라고 자신이 임의로 지정한 3~4명의 고위 장교들에 대한 비위사실을 음해성 투서를 한 적이 있고, 2010년 11월 육군 중앙수사단(단장 승장래 준장)에 제보된 내용은 전 수방사 헌병대장을 역임한 당시 L대령이 약 300만원의 연말 격려비 횡령, 매월 400만원의 중식비, 비품구매비의 가짜 영수증 처리, 매월 수사비 약 100만원 유용, 매월 헌병 오토바이 정비비 약 40만원 유용 등의 방법으로 공금 약 1억 2,000만원 상당을 빼돌려 상품권, 양주, 갈비세트를 구입하여 유력자에게 진급로비를 하는데 쓰였다는 제보가 들어왔으나 이 과정에서 군은 내부비리를 밝히려는 세력과 이를 무마하려는 세력 간의 이전투구의 치욕스런 모습을 드러내었다.

마지막으로 군 부패가 군납비리이다. 군납비리는 엄청난 돈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군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정치권, 업계와 두루두루 연관이 되어 있다. 군납은 최근 불거진 병사 식단 문제와 같이 각종 식재료나 군수품 관련 비리뿐만 아니라 부대 및 군 복지시설 운용 비리, 무기도입 비리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특히 무기체계 운용을 위해 첨단 신무기를 구입할 경우 생기는 비리는 바로 물리적인 국방력 악화라는 군 안보체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박영욱(2011) 연구에 드러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2010년에 K-9 자주포의 전용 부동산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원인은 생산 업체가 전용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입찰사양서를 군(軍) 수사에 제공했으나 실제로는 전용 부동산이 아닌 일반 부동산

을 사용하여 장비의 훼손을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군수사령부 핵심간부의 불법적 개입이 드러났다. 또 국방부가 2002년부터 개발한 신형 전투화는 2009년부터 부대에 보급하기 시작했지만 신형 전투화를 착용한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접착력 부족으로 2010년 8월 4,035족에서 밑창이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재향군인회와 군인공제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된 보주기 식 사업관리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지만 막강한 예비역 단체를 상대로 제대로 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2. 군(軍) 신뢰

신뢰는 주로 조직 내에서 조직원과 상사, 조직동료 간에 공정성이나 리더십과 관련되어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 등 조직 효율성의 선행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신뢰(trust)라는 용어는 편안함을 뜻하는 독일어 'trost'에서 유래되었는데 사람간의 관계의 질(quality of relationship)의 척도의 하나로 서로간의 편안함의 정도를 말한다(이덕진, 2012). 즉, 개인은 타인과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경험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관계 속에서 서로 간 신뢰가 형성되고, 이 신뢰를 기초해 사회적 결속이 강화된다. 따라서 신뢰란 사회적 관계와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개인의 심리상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속성으로 볼 수 있다(Lewis & Weigert, 1985). 따라서 신뢰를 일반적으로 '관계하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 기대'라는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뢰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확신적인 긍정적 기대이고(Lewicki et al., 1998) 불확실한 상호작용 하에서 상대방의 기대되는 행위로부터 다른 편이 받을 수 있는 긍정적 결과에 대한 기대이다(Bhattacharya et al., 1998)이다.

신뢰는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정직성, 언행일치, 약속이행, 위선이나 거짓이 아니라는 기대, 역할을 잘 수행하리라는 기대 등을 말하는데 조직행동분야에서 대인 간 신뢰, 조직 간 신뢰 등 다양한 수준 신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한재원, 2007). 신뢰는 두 가지 이상의 매개체 간 형성되고자 하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대상과 방향성을 가지는 속성이 있고(Fukuyama, 1985), 상대방이 자신의 예측을 벗어나지 않으며 자신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이라고 정의 하였다(허진, 2001).

신뢰는 상대방에 대한 감시, 통제와 같은 행동들은 능력과 관계가 없으며 상대방이 자신에게 중요한 특정행동에 대해 수행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행동에 동조하려는 의향인데(Mayer et al., 1995), 따라서 신뢰는 당사자들 간에 공유하고자 하는 관계에 대한 기대의 집합체이며 이는 사회규칙에 대한 절차의 합법성에 상호작용을 한다(Zucker, 1986). 신뢰감은 감성과(emotional) 이성(rationality)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분류하여 이성적 신뢰와 감성적 신뢰로 나눌 수 있다(Lewis & Weigert, 1985). 이에 반해 Levering(2002)은 신뢰의 핵심에 대해 구성원들이 리더와 조직에 대한 믿음을 통해 구성원

들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신뢰의 행동 유형은 진실성, 공정성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군의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전경국, 2020). 군 신뢰는 국민이 군과 군인이 하는 역할에 대한 긍정적 평가 정도 또는 호의의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김태웅(2008)은 군 신뢰를 군의 능력과 존재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그리고 군의 정책 과 홍보 활동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Mayer, et al.(1995)의 일반적 신뢰 결정모형에 따르면 신뢰의 결정요인으로서 선의(benevolence), 능력(ability), 성실성(integrity)을 제시하였는데(이덕진, 2012), 이에 반해 군은 국가안보라는 조직의 공적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정부 조직과 다른 폐쇄성 및 위계성 등 군대 조직만의 가지는 특성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조직문화 특성인 일관성, 효율성, 개방성도 군에 대한 신뢰 결정요인으로 볼 수 있다(전경국, 2020). 김청희(2003)은 군에 대한 신뢰와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군 신뢰의 구성요소로 정치적 중립, 국가안보, 사회기여, 성실성을 선정하였고, 실증분석 결과 성실성이 군 신뢰에 가장 큰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일관성, 정치 중립, 안보능력, 사회기여, 유효성의 순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신뢰성이나 주변 환경 요인은 군 신뢰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3. 국가안보의식

모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는 국가의 생존이며, 이에 따라 상대국가의 공격적 군사력에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다. 따라서 자국의 군사력을 극대화하여 상대국가의 가능한 공격 위협을 무력하게 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노력한다(전경국, 2020). 국가의 안전은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높은 수준의 복지 체제, 그리고 국민들 개개인의 자아성취의 토대가 되므로 국가 안보를 국민의 복지와 행복의 밑바탕이 되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제반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윤정현, 2019). 한편 김구섭(2011)은 국가안보 활동을 국가, 사회, 시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유지 또는 보장하는 국가의 제반 활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체제를 지속하는 바탕을 제공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김충남과 문순보(2012)은 국가 안보 활동을 대내외적 위협에서 안전한 국가 상태를 보호함으로써 핵심적인 국가이익을 지키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김충남, 문순보, 2012).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국가안보와 국민들의 안보의식과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국민들은 외교와 안보분야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예 무관심하다는 안보의식과 국가안보와는 직접적인 논리적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는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현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정책결정론자들은 국민들의 여론을 정책에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국가안보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장노순, 2019). 이와 같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보의식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존재하지만 안보의식은 단순한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또는 정책결정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의 문제가 아닌 그 시대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안보의식의 존재 의미가 있다(전경국, 2020).

냉전체제가 와해된 1990년대에 이후에 유럽의 안보문제 연구가들은 안보개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군사안보의 중요성이 크게 줄어들면서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개념, 또는 총체적 안보, 공동 안보로 바뀌었다(이영균, 2002). 윤민우(2015)는 국가안보정책을 “군사 및, 비군사 분야에 걸쳐 대내외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가 가치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그는 군사 부문 및 비군사 부문에서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비군사 부문도 군사 부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위상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을 비군사적 위협을 상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보개념은 종래에는 군사적 측면이나 정치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협소한 개념이었으나 최근에는 비군사적, 비정치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안보개념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현대의 안보개념은 한 국가에 위협이 되는 다양한 위협 요소, 즉 정치군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환경, 경제, 에너지, 그리고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으로 부티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백승도,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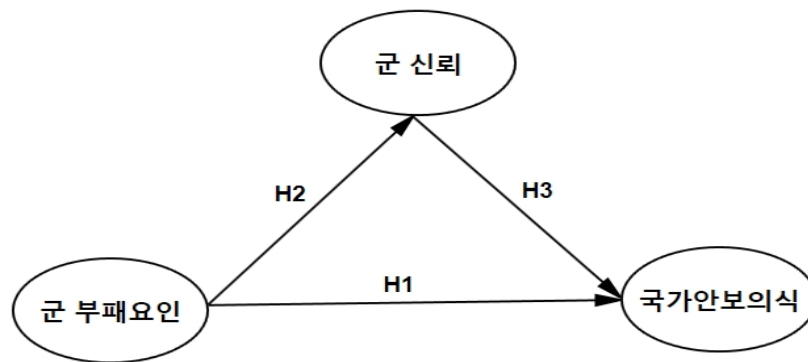
국민들의 안보의식에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영균(2002)은 입대 전 신세대의 국가안보 인식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신세대의 안보인식의 결정요인으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군사적 요인으로 남북한의 군사력, 그리고 북한의 도발행위, 외교적 요인으로 주변국의 군사력과 강대국의 자국이익 추구자세, 정신적 요인으로 안보교육 강화, 대통령의 안보관, 지도층 인사의 안보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력을 꼽았다. 김종영 등(2008)은 안보상황에 대한 태도와 견해, 안보위협 요인, 안보정책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미국에 대한 인식을 꼽았고, 김병조(2011)는 안보의식 구성요소를 북한의 무력 위협, 국제안보환경의 변화, 경제상황의 급변, 정치적 변동, 사회 불안, 그리고 국방 및 군에 대한 국민들 인식을 안보의식을 결정하는 요소로 파악하였다. 김용현과 박영주(2011)는 전투력 강화, 경제성장, 안보교육 강화, 북한의 도발적 행동, 북한의 군사력, 그리고 한반도 주변국의 군사력, 북한과의 교류확대, 주변국과의 국제 공조, 한미협력체제의 강화 등을 언급하였고, 백승도(2012)은 안보상황, 국방신뢰, 자긍심, 참여도, 만족도, 안보의식을 안보의식 결정요인으로 꼽았다.

Ⅲ. 연구방법론

1.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본 연구는 군 부패요인이 시민들의 국가안보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군 신뢰를 매개로 국가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군 부패요인은 가장 대표적인 군 부패인 병역비리, 인사비리, 군납비리로 구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위 연구모형에 따라 연구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H1. 군 부패요인은 국가안보의식에 부정 영향을 미친다.

가설 H1.1 병역비리는 국가안보의식에 부정 영향을 미친다.

가설 H1.2 인사비리는 국가안보의식에 부정 영향을 미친다.

가설 H1.3 군납비리는 국가안보의식에 부정 영향을 미친다.

가설 H2. 군 부패요인은 군 신뢰에 부정 영향을 미친다.

가설 H2.1 병역비리는 군 신뢰에 부정 영향을 미친다.

가설 H2.2 인사비리는 군 신뢰에 부정 영향을 미친다.

가설 H2.3 군납비리는 군 신뢰에 부정 영향을 미친다.

가설 H3. 군 신뢰는 국가안보의식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H4. 군 신뢰는 군 부패요인과 국가안보의식 간에 매개효과가 있다.

가설 H4.1 군 신뢰는 병역비리와 국가안보의식 간에 매개효과가 있다.

가설 H4.2 군 신뢰는 인사비리와 국가안보의식 간에 매개효과가 있다.

가설 H4.3 군 신뢰는 군납비리와 국가안보의식 간에 매개효과가 있다.

2. 자료 수집과 표본의 일반적 특성

자료수집은 2020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 인터넷 설문조사 회사를 이용하여 서울 및 수도권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면 총 247부이다. 그 중 남자는 114명(46.2%), 여자는 133명(53.8%)로 비슷하였고,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73명(29.9%), 30대가 55명(22.7%), 20대 이하가 53명(21.5%)의 순으로 나왔다(<표 1>). 학력별로 보면 대졸 학력이 전체의 36.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졸이 27.0%, 고졸 이하 학력자가 22.0%의 순으로 나왔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문직이 2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무행정직이 25.5%, 자영업이 17.4%, 학생 및 기타가 14.2%의 순으로 나왔다.

〈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분류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114	46.2
	여자	133	53.8
연령	20대 이하	53	21.5
	30대	55	22.3
	40대	73	29.6
	50대	44	17.8
	60대 이상	22	8.9
학력	고졸 이하	56	22.7
	전문대졸	66	26.7
	대졸	92	37.2
	대학원 이상	32	13.0
직업	전문직	64	25.9
	사무행정직	63	25.5
	영업직	20	8.1
	자영업	43	17.4
	가정주부	22	8.9
	학생 및 기타	35	14.2

3. 측정도구의 조작적 정의

일반시민들이 지각하는 대표적인 군의 부패 요인으로 병역비리, 인사비리, 그리고 군납비

리로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비리의 측정값은 각 군 비리의 정도나 심각성으로 정의하고 각 비리 요소에 대해 ‘비리가 심하다고 생각한다’, ‘언론에서 자주 접하다’,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빨리 청산해야 하는 군 비리이다’, ‘별로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등 5개 항목을 Likert형 5점 척도로 물었다. ‘매우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로 코딩하고 각 구성개념에 해당하는 문항의 평균값을 측정값으로 하였다.

군의 대한 신뢰는 김청희(2003)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를 군사능력, 사회적 기여, 성실성, 군 조직문화특성으로 분류하여 수정 사용하였다.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코딩하여 설문문항의 평균값을 측정값으로 하였다. 설문문항은 ‘나는 한국군이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군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군이 청렴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군의 충성심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군의 전문성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고 생각한다.’ 등 7개 문항이다.

국가안보의식은 류병목(2016)과 성백선(2014)의 연구를 참조하여 크게 ‘전쟁 위기의식’, ‘안보관심 정도’, ‘참여의지’로 나뉘고, 여기에 해당하는 설문문항으로 ‘한반도에서 전면적인 또는 국지적인 전쟁발생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 관심이 있다.’, ‘안보교육과 민방위훈련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생하면 적극 참전하겠다.’,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겠다.’ 등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설문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로 측정하고 설문문항의 평균값을 측정값으로 하였다.

4.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1) 측정도구 탐색적 요인분석

<표 2>는 군 부패요인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요인1은 ‘병역비리’, 요인2는 ‘인사비리’, 요인3은 ‘군납비리’로 인식되었고, 각 측정도구의 요인적재값은 모두 0.5 이상, 각 요인에 해당하는 고유값은 1.0 이상으로 나오고, 3개의 요인에 설명하는 누적변동설명력은 69.833%으로 50.0% 이상으로 나와 군 부패요인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양호하게 나왔다. 또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를 파악하기 위해 Cronbach α 값을 구한 결과 병역비리 요인은 0.772, 인사비리 요인은 0.908, 군납비리는 0.844로 모두 0.7 이상으로 나와 군 부패요인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도 양호하게 나왔다.

〈표 2〉 경찰부패요인 측정도구 요인분석

병역비리		인사비리		군납비리	
설문문항	요인 적재값	설문문항	요인 적재값	설문문항	요인 적재값
a11	0.713	a21	0.811	a31	0.620
a12	0.882	a22	0.765	a32	0.716
a13	0.673	a23	0.687	a33	0.648
a14	0.791	a24	0.913	a34	0.801
a15	0.912	a25	0.881	a35	0.711
고유값=3.951 누적변동설명력=26.340 Cronbach α =0.772		고유값=3.522 누적변동설명력=49.893 Cronbach α =0.908		고유값=2.991 누적변동설명력=69.833 Cronbach α =0.844	

군 신뢰 측정도구에서는 요인적재값이 모두 0.5 이상, 고유값은 3.673으로 1.0 이상, 변동 설명력은 73.462%로 50.0% 이상으로 나왔고, 국가안보의식 역시 측정도구의 요인적재값은 모두 0.5 이상, 고유값은 4.201로 1.0 이상, 변동설명력은 84.018%로 50.0% 이상으로 나와 군 신뢰와 국가안보의식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양호하게 나왔다(〈표 3〉). 또 군 신뢰에서 Cronbach 값은 0.884, 국가안보의식은 0.911로 모두 0.7 이상으로 나와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도 양호하게 나왔다.

〈표 3〉 군 신뢰, 국가안보의식 측정도구 요인분석

군 신뢰		국가안보의식	
설문문항	요인 적재값	설문문항	요인 적재값
b1	0.774	c1	0.844
b2	0.841	c2	0.688
b3	0.705	c3	0.904
b4	0.927	c4	0.911
b5	0.831	c5	0.887
고유값=3.673, 변동설명력=73.462, Cronbach α =0.884		고유값=4.201, 변동설명력=84.018, Cronbach α =0.911	

2) 측정도구 확인적 요인분석

〈표 4〉은 군 부패요인과 군 신뢰, 그리고 시민들의 국가안보의식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의 측정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표준회귀계수가 전부 0.5 이상이고 유의적으로 나와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C.R.값 역시 모두 0.7 이상, AVE는 모두 0.5 이상으로 나와 측정도구의 개념타당도와 집중 타당도도 양호하게 나왔다. 한편 측정모형의 적합도에서는 평균 $\chi^2=2.302$ 으로 0.3 이하 기준치를 만족하였고, GFI=0.906, TLI=0.904, CFI=0.929로 모두 0.9 이상 기준치를 만족하고, 이에 반해 RMSEA=0.062로 0.8 이하 기준치를 만족하여 전체적으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왔다.

〈표 4〉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 문항	구성개념	비표준 회귀계수	표준 오차	표준 회귀계수	t 값	C.R.	AVE
a11	병역 비리	1	0.002	.		0.755	0.567
a12		1.208	0.055	0.903	17.145***		
a13		1.319	0.061	0.912	18.920***		
a14		0.894	0.044	0.789	14.201***		
a15		0.917	0.080	0.802	14.208***		
a21	인사 비리	1	0.024	.		0.834	0.733
a22		1.217	0.079	0.841	15.002***		
a23		0.805	0.061	0.653	13.9440***		
a24		0.924	0.014	0.949	18.001***		
a25		0.931	0.054	0.924	16.944***		
a31	군납 비리	1	0.079			0.790	0.624
a32		1.274	0.041	0.925	27.101***		
a33		0.991	0.047	0.711	16.444***		
a34		1.104	0.029	0.805	17.207***		
a35		1.288		0.774	16.890***		
b2	군 신뢰	1	0.089	.		0.711	0.669
b3		0.984	0.050	0.612	12.884***		
b4		1.113	0.071	0.793	14.909***		
b6		1.425	0.072	0.729	15.004***		
b7		1.122	0.019	0.816	19.221***		
c1	국가안보 의식	1	0.084	.		0.828	0.674
c2		1.121	0.034	0.844	18.357***		
c3		0.944	0.038	0.815	16.011***		
c4		1.244	0.022	0.981	27.400***		
c5		0.758	0.061	0.756	14.335***		
측정 모형 적합도	$\chi^2=210.774^{***}$, 평균 $\chi^2=2.302$, GFI=0.911, TLI=0.908, CFI=0.918, RMSEA=0.054						

*** p<.001

5.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이 지각하는 군 부패요인과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국가안보의식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0.0과 AMOS 20.0이

다. 구체적인 통계 방법론으로 첫째,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고,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를 한 다음 Cronbach α 값을 구해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를 살펴보았다. 셋째, 기초분석으로 연구대상변수인 군 부패요인, 군 신뢰, 그리고 시민의 국가안보의식의 기술통계와 상관계수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군 부패요인이 시민이 지각하는 군 신뢰를 매개로 국가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의 인과모형을 적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또 군 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 방식을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기초분석

<표 5>는 연구변수인 군 부패요인, 군 신뢰, 그리고 국가안보의식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변수들간의 상관계수를 정리한 표이다. 표에 의하면 군 부패요인 중 군납비리가 평균 3.38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병역비리가 평균 3.21, 인사비리가 평균 3.08 순으로 나왔다. 군 신뢰는 평균 3.18, 국가안보의식은 평균 3.27로 ‘보통이다’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군 부패요인과 군 신뢰, 국가안보의식 간에는 유의적인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군 신뢰와 국가안보의식 간에는 $r=0.778(p<.001)$ 로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군 부패요인들 간에는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5〉 연구변수 상관관계와 기술통계

구분	군 부패요인			군 신뢰	국가안보의식
	병역	인사	군납		
병역비리	.				
인사비리	.615***	.			
군납비리	.702***	.704***	.		
군 신뢰	-.849***	-.308**	-.529***	.	
국가안보의식	-.728***	-.401***	-.554***	.778***	.
평균±표준편차	3.21±0.85	3.08±1.14	3.38±0.94	3.18±0.88	3.27±1.06

** $p<.01$, *** $p<.001$

2. 구조방정식 검증 결과

1) 인과모형 검증

군 부패요인이 군 신뢰를 매개로 시민들의 국가안보의식에 미치는 구조적 인과관계를 검증한 결과 군 부패요인 중 인사비리는 $\beta=-.414(p<.01)$, 군납비리는 $\beta=-.630(p<.001)$ 로 유의적인 부(-)의 영향력이 있었으나 병역비리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었다(<표 6>). 즉 군의 인사비리나 군납비리가 심해질수록 시민들의 국가안보의식은 유의적으로 하락하였다. 따라서 가설 H1.2와 가설 H1.3은 채택되었으나 가설 H1.1은 기각되었다.

군 부패요인이 군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병역비리는 $\beta=-.424(p<.001)$, 인사비리는 $\beta=-.381(p<.01)$, 군납비리는 $\beta=-.714(p<.001)$ 로 유의적인 부(-)의 영향력이 있었다. 즉 군의 병역비리나 인사비리, 군납비리가 심해지면 시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는 유의적으로 하락하였다. 따라서 가설 H2.1, 가설 H2.2, 가설 H2.3은 모두 채택되었다. 군 신뢰가 국가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beta=4.987(p<.001)$ 로 유의적인 정(+)의 영향력이 있었다. 즉 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수록 국가안보의식도 이에 따라 유의적으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가설 H3은 채택되었다. 인과모형의 적합도에서는 평균 $\chi^2=2.065$ 로 3.0 이하로 나왔고, GFI=0.914, TLI= 0.917, CFI=0.905로 모두 0.9 이상, RMSEA=0.062로 0.8 이하로 나와 기준치를 만족하였다.

〈표 6〉 인과모형 검증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표준 회귀 계수	t 값	p 값
병역비리	국가안보의식	-0.244	0.20	-0.257	1.219	0.201
인사비리		-0.327	0.11	-0.414	-3.014	0.002**
군납비리		-0.292	0.08	-0.630	-3.929	***
병역비리	군 신뢰	-0.311	0.09	-0.424	-3.144	0.005**
인사비리		-0.252	0.08	-0.381	-3.047	0.006*
군납비리		-0.426	0.09	-0.714	-5.776	***
군 신뢰	국가안보의식	0.339	0.06	0.570	4.987	***
측정 모형 적합도	$\chi^2=2711.585$ ***, 평균 $\chi^2=2.065$, GFI=0.914, TLI=0.917, CFI=0.905, RMSEA=0.062					

** p<.01, *** p<.001

2) 효과 분석

<표 7>은 군 부패요인이 군 신뢰를 매개로 국가안보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효과, 간

접효과로 나눠 분석한 표이다. 표에 의하면 군 신뢰는 병역비리에서 $\beta=-0.242(p<.05)$, 인사비리에서 $\beta=-0.217(p<.05)$, 군납비리에서는 $\beta=-0.407(p<.01)$ 로 유의적인 부(-)의 매개효과가 있었다. 군 부패요인이 국가안보의식에서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친 총효과에서는 군납비리가 $\beta=-1.037(p<.01)$ 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인사비리가 $\beta=-0.631(p<.01)$, 병역비리는 $\beta=-0.497(p<.05)$ 의 순으로 국가안보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표 7〉 효과분석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병역비리	군 신뢰	국가안보의식	-0.257	-0.242*	-0.497*
인사비리			-0.414**	-0.217*	-0.631**
군납비리			-0.630***	-0.407**	-1.037**

* $p<.05$, ** $p<.01$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군의 부패요인이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매개로 국가안보의식에 미치는 구조적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 성인 2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軍) 부패요인이 국가안보의식에 미치는 직접 요인에서는 인사비리와 군납비리는 부적인 영향력이 있었으나 병역비리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었다. 즉, 군의 인사비리나 군납비리가 심해질수록 시민들의 국가안보의식은 유의적으로 하락하였으나 병역비리는 국가안보의식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었다.

둘째, 군(軍) 부패요인이 군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병역비리와 인사비리, 군납비리 모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었고, 이 중 군납비리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병역비리, 인사비리의 순으로 나왔다.

셋째, 군(軍) 신뢰는 시민들의 국가안보의식의 정적인 영향력이 있었다. 즉 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국가안보의식도 유의적으로 상승하고 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국가안보의식도 이에 따라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 결과는 전경국(2020)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넷째, 군(軍) 부패요인과 국가안보의식 간에 군 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군 신뢰는 병역비리, 인사비리, 군납비리 모두 유의적인 부적인 매개효과가 있었다. 또 군 부패요인이 국가안보의식에 미치는 직접효과까지 고려한 총 효과를 살펴보면 군 부패의 병역비리,

인사비리, 군납비리 모두 국가안보의식에 부정적인 총 효과가 있었고, 이 중 군납비리가 가장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인사비리, 병역비리의 순으로 나왔다.

군납비리가 국가안보의식에 가장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국민들의 국가안보의식은 무기 등 물리력에 의존하는 국방의 개념에 가깝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군납비리 다음으로 인사비리가 국가안보의식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결과에서 시민들은 인사비리로 인해 무능하고 부패한, 그러나 정치적인 줄을 잘 타는 군인은 진급하고 능력 있고, 청렴한 군인은 오히려 진급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병역비리는 국가안보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군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안보의식에 하락시킨다고 인식하였다. 즉 병역비리 자체는 대한민국 남성의 의무로서 일부 병역비리 자체는 군의 국방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으나 군 복무 중인 병사나 군 복무를 마친 성인, 또는 현재 군 복무 중인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주는 공정성의 훼손을 가져와 국가안보의식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최근 병의 식단 문제와 공군 여중사의 성폭행으로 인한 자살 사건 등 군 관련 비리 문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 그 동안 민주화 과정을 걸치면서 한국군이 상당히 현대적이고, 개방적, 그리고 민주적으로 발전하여 왔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현재 한국 군대의 구조적인 부패요인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군의 개방화와 민주화를 더욱 조속히, 그리고 철저히 시행되어야 하고, 군 비리 발견 시 엄격한 처벌과 동시에 제도적 사후 대책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보안의 명분으로 철저히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군사법정을 일반 민간법정의 통제 하에 두는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고 군 부패 청산을 위한 최소한 사단급 부대에 상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적인 규모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일반 국민들의 군 부패에 대한 경험은 자신의 군 복무 경험이나 언론의 보도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응답의 편의(bias)가 존재할 수 있다. 군 부패와 안보 이슈는 남녀 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군필자와 미필자간에도 인식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성별과 군필 여부에 따른 조절효과 검증은 차후 연구과제로 삼는다.

참고문헌

- 김구섭 (2011). 국민 안보의식 진단과 처방, 서울:한국국방연구원.
- 김병조 (2011). 사회안보 이론의 한국적 적용:도입, 채택, 발전, 국방연구, 54(1), 1-24.
- 김용현 · 박영주 (2011).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학생의 안보의식 실태 및 고취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7(1), 187-213.
- 김종영 · 황중호 · 이규용 (2008). 국민 안보의식 제고 방안, 전략논단, 9, 214-243.
- 김청희 (2003). 군에 대한 신뢰와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충남 · 문순보 (2012). 민주시대 한국 안보의 재조명, 서울:도서출판 오름.
- 김태웅 (2008). 청소년의 정보원 이용이 군 이미지, 복무의사,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병목 (2016). 군복무만족도와 안보관심도가 애국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영욱 (2011). 국방분야 부패 발생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 백승도 (2012).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한국위기관리논집, 8(2), 108-122.
- 성백선 (2014). 안보교육과 안보의식 향상:4년제 대학생의식조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민우 (2015). 국가안보에 관한 다루어지지 않던 논의들, 한국국가안보, 국민안전학회지, 1, 243-272.
- 윤정현 (2019). 신흥안보거버넌스: 이론적 고찰과 대안적 분석틀의 모색”, 국가안보와 전략, 19(3), 179-211.
- 이덕건 (2012). 군조직에서 리더십 유형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변혁적, 거래적, 윤리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균 (2002). 입대전 신세대의 국가안보에 관한 인지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6(1). 47-74.
- 장노순 (2019).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전략 그리고 한국적 함의, 국가안보와 전략, 19(2), 88-112.
- 전정국 (2020). 대학생이 지각하는 군 신뢰가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20(4), 88-106.
- 전상조 (2013). 대학생의 안보의식과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hattacharya, R., Devinny, T. M., & Pillutla, M. A. (1998). A formal model of trust based on outcom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 459-472.
- Butler, J. K. (1991). Toward understanding and measuring conditions of trust: Evolution of a conditions of trust inventory, Journal of Management, 17: 643-663.
- Butler J. K. Jr., & Cantrell, R. S. (1984). A behavioral decision theory approach to modeling dyadic trust in superiors and subordinates, Psychological Reports, 55: 19-28.
- Lewicki, R. J., McAllister, D. J., & Bies, R. J. (1998). Trust and distrust: New relationships and realiti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 438-458.
- Lewis, J. D., & Weigert, A. (1985). Trust as a social reality, Social Forces, 63: 967-985.
- Lippman, Walter (1943). U.S. Foreign Policy: Shield of the Republic, Boston: Little Brown & Co.
- Mayer, R. C., Davis, J. H., & Schoorman, F. D.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 709-734.

투고일자 : 2021. 06. 08

수정일자 : 2021. 06. 13

게재일자 : 2021. 06. 30

<국문초록>

군 부패요인이 군 신뢰를 매개로 국가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

전 경 국

국방 서비스는 전쟁을 억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국가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방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군 부패요인을 설정하고 군 부패요인이 군 신뢰를 매개로 국가안보의식에 미치는 구조적 인과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군 부패요인은 병역비리, 인사비리, 그리고 군납비리로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 성인 2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 부패요인이 국가안보의식에 미치는 직접 요인에서는 인사비리와 군납비리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었으나 병역비리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었다. 둘째, 군 부패요인이 군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병역비리와 인사비리, 군납비리 모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었다. 셋째, 군 신뢰는 시민들의 국가안보의식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었다. 넷째, 군 부패요인과 국가안보의식 간에 군 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군 신뢰는 병역비리, 인사비리, 군납비리 모두 유의적인 부(-)적인 매개효과가 있었다.

주제어: 군 부패요인, 군 신뢰, 국가안보의식, 매개효과